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0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25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0 25. (월)	담당부서	한미FTA대책과
담당과장	박성진 과장(044-203-5920)	담 당 자	김정훈 사무관(044-203-5944)

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, 대미(對美) 통상현안 대응 위해 방미

- 반도체 정보 요구 관련, 영업비밀 유출 등 우리기업 우려 전달 -

- 철강 232조 개선방안, 한미 통상-공급망·기술 협력 강화방안 논의 -

□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**한미 정상회담(5.21), 한미통상장관회담**(9.13, 10.5, 10.12) **후속 조치 차원에서** 10.25(월)~27(수)(현지시간) 워싱턴 D.C.를 방문, 미국 행정부·의회 등의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**아웃리치 활동을 전개**할 계획임

○ **(USTR)** 김 실장은 사라 비앙키(Sarah Bianchi) 부대표, 마이클 비만(Michael Beeman) 대표보, 후안 밀란(Juan Millan) 대표보와의 면담을 통해

-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(Katherine Tai) USTR 대표 면담시(10.5) 여 본부장이 제안한바 있는 **한미 통상-공급망·기술(TST*) 대화 개최 방안**에 대해서 논의하고, **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 개최를 위한 의제**들도 점검함

* Korea-US Strategic Dialogue on Trade, Supply Chain, and Technology

- 아울러, **세계무역기구(WTO) 제12차 각료회의**(11.30~12.3, 제네바)의 성공과 다자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**양국간 협력 방안과 WTO개혁 진전을 위한 대책에** 대해서도 논의함

○ **(상무부)** 제레미 펠터(Jeremy Pelter) 차관보와의 면담시 최근 美정부의 우리 **반도체업체들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** 관련, **영업비밀 유출 등 우리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함**

- 11월1일로 예상되는 미(美)-유럽연합 간 철강 232조 합의를 앞두고 **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**를 한국에 해줄 것을 요구함

○ **(백악관)** 피터 하렐(Peter Harrel)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선임보좌관, 제니퍼 해리스(Jennifer Harris) 선임국장과의 대화를 통해 **양국간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**

- 또한,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세계적 트렌드임에 공감을 표하면서,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, CBAM*) 등 **무역에 관련된 환경조치**들이 **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한다**는 우리측 입장을 공유함

○ **(의회)** 샐리 랭(Sally Laing), 알렉산드라 휘태커(Alexandra Whittaker), 마유르 파텔(Mayur Patel) 등 상·하원 수석전문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, 최근 미(美)의회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**전기차 보조금 법안**(Build Better Back Act)*에 대한 **통상규범 위배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함**

* (법안내용) 미국내 전기차 구매시 제공되는 기본 보조금 $7,500 외, 노조가 있는 미국내 공장에서 최종 조립 시 $4,500 추가 지급, 미국산 부품 및 배터리셀을 50% 이상 사용 시 $500 추가 지급 등

- 또한, 양국간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**투자 제고방안**을 논의하고 **한국 기업**들도 CHIPS for America Act, NSF for the Future Act 등을 통한 미국 투자 인센티브 **지원을 동등하게 받아야 함**을 요구함

□ **(기타)** 윌리엄 롸인쉬(William Reinsch) CSIS 선임자문 등 **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 및 전문가**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**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**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대책과 김정훈 사무관(☎ 044-203-59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